연중 제12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하느님 모르는 척하기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마태 26,33)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마태 2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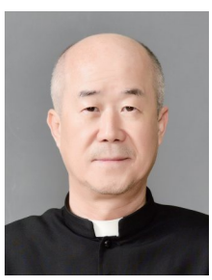
주님께서 떼어 주신 빵을 먹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베드로가 대사제 집 안뜰 바깥쪽에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마태 26,72) 하고 부인합니다. 그 무겁고 어두운 밤에 닭이 울고 베드로도 슬피 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근심이 베드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는 말씀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회한과 자책으로 밤을 보냈는지는 베드로 사도만이 알 수 있겠지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는 적극 동참하였고 다시 공동체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염려와 함께 영성체의 간절함의 말씀도 들었고,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레지오를 안 해서 우선 편안하다든지, 미사에 안 가도 괜찮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본당에 잘 오시는 교우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지만, 모르는 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을 증언해야 할 그 근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마태 10,28-33)



모든 교우들과 함께 크게 성가를 부르며, 활기찬 미사를 봉헌할 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들 평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제 오딜론 **신부** | 사파동본당 주임 겸 창원지구장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예레 20,10-13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제 2 독 서 로마 5,12-15
복 음 마태 10,26-33

주일 전례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한국천주교회에서는 1982년 주교회의의 인준으로 북한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민족화해위원회로 모임의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 전국 16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수도 단체 및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대북지원 사업을 실행하며, 민족화해 활동과 복음화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01년 이후 북한 동포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자재를 비롯한 물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새터민)들의 사회 정착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적응할 수 있는 활동 및 탈북민 자녀들의 장학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일아카데미와 평화순례를 통하여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자료 수집과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의 북한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9 대북지원 – 못자리용 비밀박막

2019 탈북민 정착지원 – 자녀 장학금 전달식(옥포성당)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구암동성당)

“평화를 빕니다!”

하춘수 레오 신부/ 민족화해위원장

올해로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두 번 바뀌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상처와 여파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잔존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전쟁이었습니까? 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산 채로 혹은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살아야 했던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야 했습니까?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400만 명이었으니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국민의식의 신장으로 민주주의 정치발전도 이루고 있고, 요즘 감염병 방역에도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9 평화기행(노동당사 앞)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어 있다는 것이요, 또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이 체결한 정전협정은 전쟁을 중단한다는 것이지 끝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매듭짓지 못한 채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치스러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우리는 평화를 갈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헤어진 가족과 연인이 만나는 것, 어렵지 않게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것,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남과 북이 서로 눈을 흘기는 원수이기 전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요, 서로 총부리 거두고 한 발자국 다가서서 손 맞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화는 ‘성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그리고 능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 땅에도 성령의 바람, 평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센 바람처럼 그리고 불혀 모양으로 오시는 성령께 온 겨레가 도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심과 미움이 화해와 용서, 포용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2019 대북지원(아동복)

지평과 초월

‘선량한’ 인종차별주의자들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흑인들의 삶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고통스럽고도 절박한 이 외침이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 46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 데렉 쇼빈의 무릎에 짓이겨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가던 8분 46초. 이 아득하게 괴로운 시간은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미국 사회 흑인들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분노의 세월을 살인이라는 결과로 압축한다. 2020년 6월 미국의 “Black Lives Matter(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단순히 경찰 폭력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다. 이제 이 운동은 총체적으로 망가진 시스템을 교정하고자 하는 비폭력 혁명으로, 인종과 연령을 초월한 온 국민의 평화 시위로 발전했다. 이 시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도 크다. 많은 평신도와 수도자와 사목자들이 피켓을 들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 나서거나 기도를 통해 변화의 기류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워싱턴 대교구 교구장으로 임명된 윌튼 그레고리(Wilton D. Gregory) 대주교와 예수회의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SJ) 신부는 인종차별이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죄악임을 분명히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직간접적인 동참을 뜨겁게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양극화 현상은 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그레고리 대주교와 마틴 신부와 같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교리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시위대를 줄곧 “폭도”, “좌파”로 비난하며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는 대통령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대다수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White evangelicals)이고, 그 뒤를 잇는 것이 보수적인 천주교 신자들이다. 이들은 연방군 투입까지 고려하며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려는 트럼프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가 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었다고 환호하고, “신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며, “그가 이제 신과 함께 예리코로 향할 것이다!” 하고 열광한다. 이들은 그레고리 대주교가 트럼프에게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서명을 작성하고 대주교를 향해 험악한 혐오 발언을 퍼붓는다.

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물론 낙태나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 때문에 지지하는 이들도 많지만, 그보다는 인종차별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그들의 가치관이 더 근본적인 이유다. 인종차별은 하나의 이념이나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클란(The Ku Klux Klan)과 같은 인종차별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수도 만만치 않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 중에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내는 이들은 사실 쉽게 찾을 수 없다. 차별의 스펙트럼도 넓고, 표현되는 방

워싱턴 DC 평화시위 (6월 8일)/ 사진출처: Catholic News Service

식도 다양하며, 본인이 차별하고 있다고 의식하지 못하는 소위 '선량한' 차별주의자들도 많다. 더구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극렬한 근본주의 신봉자들 뿐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평범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온건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들의 인종차별주의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가치' 때문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교리처럼 공고하게 '그리스도교적 가치'가 되어 버린 소위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미국의 정신이자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신의 선물이고, 그 일에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며, 그렇지 않다면 신이 부여한 재능을 허비하는 것이고 현세에서의 신의 명령과 축복을 거부하는 죄"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 충실하게 신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신은 물론 번영을 약속한다.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그들에게는 다양한 사회악들(가난, 인종차별, 젠더 차별, 이민/ 난민 문제 등)을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할 분석적 시각이 없다. 세계 최강국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삶의 조건이 실은 흑인 노예들을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구조적인 차별로 말미암아 교육 혜택을 못 받고 만성적인 실업을 경험하는 흑인들을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죄인들"이라 혐오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나태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게으름을 증폭시키는 몹쓸 정책에 불과하다. 또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자신들이 애써 일구어 놓은 땅에 갑자기 들어와 직업을 뺏고 무임 승차하려는 약탈자들이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기득권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종 '사회주의 정책'에 의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고 사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색인종이나 이민자들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나태한 자들", "이기주의자들", "죄인"들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

천주교 신자들은 어떨까? 미국의 보수적인 천주교 신자들은 세상의 변화가 두렵다. 이들은 살면서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교회의 전통 안에 이미 다 들어 있고, 다만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굳어진 전통은 죽은 것이며, 상황에 맞는 해석이 적용되어야 전통이 살아 있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수호하고 싶어 하는 '하느님이 세운 질서인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실은 백인과, '보편적인'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평화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수적인 천주교 신자들 그룹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에 비해 인종적 분포가 다양하다. 백인 뿐 아니라 전통적인 천주교 문화에서 자란 한인 교포들을 비롯 많은 이민자 신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신앙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신자들 또한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인종차별에 대해 성서와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인종차별은 명확하게 하느님을 거부하는 죄악이다. 사람이 타고난 조건을 빗대어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느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혐오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허락하고 정당화하는 자연법은 하느님의 법이 아니다.

알 림

교구장 동정

고성가르멜수녀원

일시: 6월 26일(금)

교구/본당

성지 및 사적지 정비위원회

일시: 6월 23일(화) 14:00

장소: 교구청

김승태 신부 군종장교 임관식

일시: 6월 26일(금)

장소: 영동 종합행정학교

청년 신앙강좌

일시: 6월 28일(주일) 13:00~15: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강사: 이정림 신부(교구 청소년국장)

주제: 계시-인간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고백

신청: 6월 21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톡플러스친구 '청년부'

※ 신청 후에만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접수 불가)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일시: 6월 24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제1차 가톨릭 상장례 봉사자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일시: 6월 26일(금) 14:00~28일(주일) 17:00
2차 – 8월 28일(금) 14:00~30일(주일) 17:00 예정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이순신로 115-758)

대상: 연령회 봉사자

교육비: 1인 16만 원(1인 1실 사용)

계좌: 농협 301-0226-0503-81, (재)마산교구

준비물: 개인컵, 상장예식서, 미사준비

문의: 교구 연령연합회장 010·4581·5420

※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 되거나 참가자가 30명 이하일 경우 교육이 취소됩니다.

소년Pr. 지도자 간담회

일시: 6월 28일(주일)

장소: 교구청

문의: 레지아 055·249·7115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40년 전통 〈팔보효소〉
PALBO FOOD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 · 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정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49만원(20년 10월/ 21년 4월)
070-4086-0207 www.catravel.co.kr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낱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10월 15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순례
스페인, 포루투갈, 프랑스, 벨기에
13일 390만원(공동경비 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SM 수맥흙(돌)침대
주보 지참 교수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中
1588-533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故 제찬석 요한 신부 8주기 추도미사

일시: 6월 27일(토) 10:00
장소: 명서동성당
문의: 명서동성당 사무실
055·238·7118

기 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7월 3일~5일, 7월 27일~29일, 7월 31일~8월 2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7월 4일(토) 14:00
여름진학캠프: 8월 7일(금)~9일(주일)
대상: 초6, 중1·2
문의: 054·338·0530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명례 교회사 강좌

내용: 1년 과정, 월 1회(6월부터)
일정: 평일반 – 3주(화) 11:00
(인물로 보는 한국교회사 "김대건·최양업 신부의 서한으로")
주말반 – 3주(토) 16:00 미사 후
(세계교회사 입문 "그리스도교 형성과 발전")
수강료: 10만 원(봉사자 7만 원)
문의: 명례성지 055·391·3206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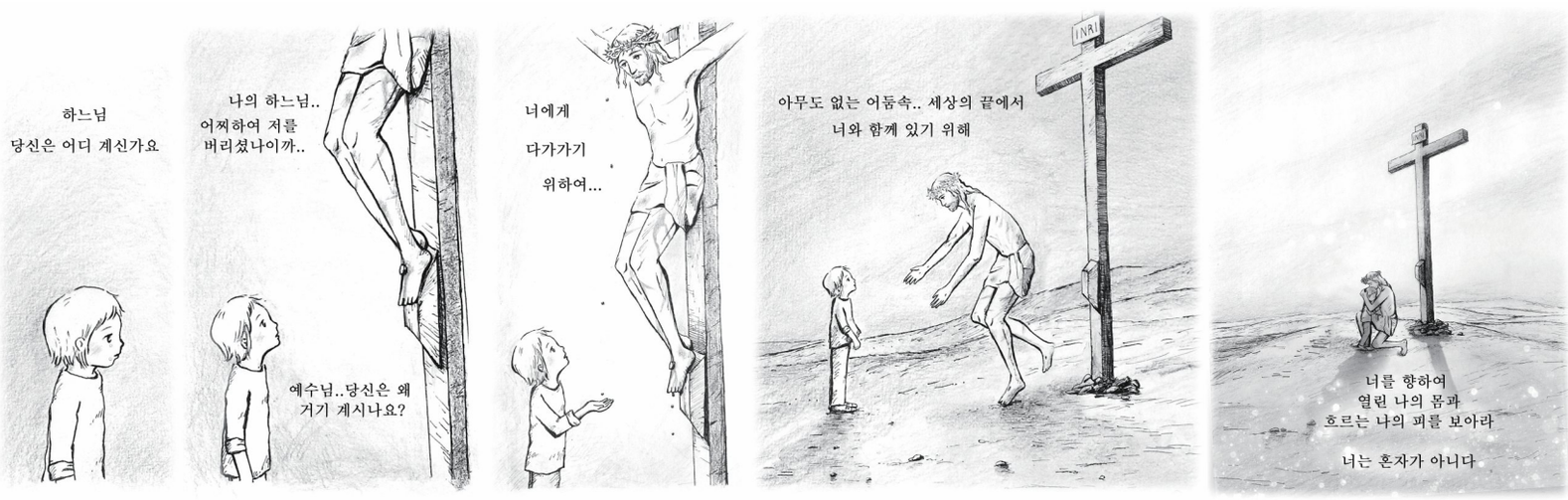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예수 성심의 아바타 되기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복음 말씀을 접하면서 가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지상 생활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지향으로 기도를 바치셨을까,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바치셨을까 하는 아이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이야말로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이시며, 이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성체 성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르멜 수녀원의 노동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사 때에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는 제병과 포도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병과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곱게 부수어진 밀가루를 반죽하여 뜨겁게 달구어진 판에 굽고 칼로 자른 뒤, 다시 말리는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제병이 만들어지고, 포도를 으깨어 깨끗하게 걸러서 몇 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으깨어지는 과정은 주님의 지상 생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유다인들에게 넘겨지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먹히시고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예수 성심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헌은 시간과 마음을 봉헌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도는 시간을 봉헌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그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바치는 것이 가치있게 시간을 봉헌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3분 이상 주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항상 깨어있으면서 그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데에 바쳤습니다. 우리도 성녀를 닮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느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자 애쓰고,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느새 우리의 전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다 보면,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아닌 예수님을 보시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이 시대에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기에 영성체를 할 때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시간과 마음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일의 작은 시간과 마음을 봉헌함으로써 당신의 어머니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 성심 성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서 이 모든 봉헌에 함께해주시기를 청하면서 말입니다.